

본회 성락 사무총장 사직

- 사슴통안도 · 농교류 추진, 농가교육 및 창업교육 계획도 -

본회 성락 사무총장이 7월 말일자로 사직했다.

성락 전 사무총장은 “2년반 동안 정들었던 협회를 떠나려니 마음이 아프지만 평소 꿈꿔오던 한국양록개발원 설립을 위해 고심 끝에 결론을 내렸다”고 사직의 변을 밝히며 그 동안 아껴준 양록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성락 전 사무총장은 2001년 9월 범양록인 결의대회의 사회를 맡아 성공적인 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섰으며 실무차원의 활발한 대정부 활동을 통해 제도개선 및 양록인 권익보호에 이바지해 왔었다.

성락 전 총장은 “비록 협회를 떠나지만 한국양록개발원을 통해 양록산업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했다.

우선 최근 설립된 한국양록개발원은 도시 유희자본의 사슴농장 투자 및 양록산물 소비촉진을 통해 사슴사육이 농촌의 중요한 소득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운영될 전망이다.

한국양록개발원은 특히 사슴농장을 직접 운영코자 하는 초보자들에게는 농장 설계부터 사슴입식, 사양관리 및 생산물 판매기법 등 양록경영의 전 과정을 알기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직영 다다엘크사슴농장에 엘크 성록 수컷 1두를 1구좌로 하는 위탁 사육 제도를 도입하고, 안내문 및 언론 홍보를 통해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중이며, 이미 확보된 20여 구좌 외에도 다수의 도시민들이 참여상담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양록개발원은 이밖에도 양록 신기술 및 정보제공을 위한 세미나 개최, 기술교육 프로그램 실시, 국내외 선진 양록현장 견학행사 등을 수시 시행할 계획이며, 양록농가가 녹용 등 생산물의 안정판매 경로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양록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행사도 기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뉴질랜드 최고 휴양지인 퀸즈타운에서 개최되는 제 2회 국제녹용과학기술 심포지움 참관을 포함하는 뉴질랜드 양록산업 시찰 행사를 본회와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양록개발원 성락 대표는 “다년간 양록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터득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양록산업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설립취지를 밝혔다. (연락처 : 033)342-9884, 011-217-5349)

한편 본회에서는 신임 사무총장 인선을 위해 농축산 언론지에 공개 채용 광고를 게재하는 등 성락 전 총장의 후임을 물색하고 있다.

본회 김수근 회장은 기존 직원들에게 신임 사무총장 인선시까지 업무상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본회 손성훈 대리를 과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양록인**